

아이들의 동물 보호와 동물 사랑이 구현되는 곳, 키자니아 동물복지센터

글 박은정 활동가

키자니아는 국가공공기관, 일반기업 등과 파트너십을 맺고 어린이들이 약 90여 개의 현실세계 직업을 체험해볼 수 있는 글로벌 직업 체험 테마파크입니다. 키자니아는 현실감과 생동감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들이 실제 크기의 2/3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린이들의 나라라고 할 수 있지요. 동물자유연대는 키자니아 서울과 파트너십을 맺고 지난 6월 본격적인 어린이 동물 보호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동물활동가 체험을 하게 될 어린이들은 동물활동 팀장의 안내에 따라 키자니아 내에 마련된 동물자유연대 동물복지센터로 입장합니다. 체험 과정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체험에 앞서서 체험에 필요한 사전지식과 활동가의 역할 등을 설명해주는 전반부와 어린이들이 동물(실제로 동물을 체험에 사용하지 않으며 간단한 움직임으로 표현할 수 있는 동물 모양의 로봇)과 교감을 나누며 직접 체험하는 후반부로 이루어져 진행됩니다.

어린이들은 센터에 입장 후 동물활동가들의 활동 영역과 역할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듣습니다. 동물활동가들은 수족관에 살던 돌고래들을 고향인 바다로 돌려보내는 활동, 동물을 실험에 이용하지 않고 대신할 방법을 촉구하는 활동, 농장 동물 복지활동 등에 대해 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습니다. 이어서 반려동물이 어떻게 유기되고 이후 어떻게 살게 되는지



알려주는 영상을 잠시 시청합니다. 이 과정에서 팀장은 어린이들에게 ‘반려동물’과 ‘유기동물’의 개념을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다음으로 어린이들은 유기되었다가 구조되어 센터에 입소한 동물로 설정된 동물(로봇인형)들을 앞에 두고 2인 1조가 되어 본격적인 활동가 체험을 시작합니다.

어린이들은 가장 먼저 육안으로 동물에게 상처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팀장은 동물을 관찰할 때 동물도 소중한 생명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루지 않도록 지도합니다. 어린이들은 동물의 체온을 재고 차트에 기록하고 구급상자 안의 의료도구를 이용해 응급처치를 합니다. 응급처치를 마치면 어린이들은 동물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면서 교감을 할 기회를 가집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어린이들은 동물도 아픔과 슬픔, 행복이라는 감정을 느끼는 생명체로 인지하게 되며, 동물을 존중하면서 보살피게 됩니다.

응급처치의 모든 과정이 끝나면 팀장은 동물이 가장 아파할 때는 가족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을 때이고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입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주면서 자연스럽게 유기동물 입양으로 이야기를 이끌어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왜 우리가 생명체를 함부로 다루거나 버려서는 안 되는지 알려주고, 버림받아 마음이 아픈 동물에게 입양을 통해 새로운 희망과 따뜻한 사랑을 선물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동물자유연대가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지 마세요, 입양하세요’ 캠페인에 어린이들의 체험과정이 귀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처럼 어린 시절에 형성된 인성은 나이를 먹어도 개인의 성품을 이루는 뿌리, 즉 근본이 됩니다. 감수성이 풍부한 어린 나이에 접하게 되는 교육의 효과는 성장한 후에도 고착화되기 때문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동물 보호 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체험에 참가했던 어린이들은 앞에 놓인 동물이 실제 동물이 아닌 로봇임에도 불구하고 무척이나 소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에 보는 이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체험하는 자신의 아이들을 창 밖에서 지켜보는 부모들의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보며 동물자유연대의 어린이 교육에 위한 첫 걸음은 성공적이었음을 확신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어린이의 올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보다 향상된 동물 보호 교육을 개발하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